



천년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명문 종가 이야기
우리는 설과 추석에 조상들께 예를 올리는 제례를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라 한다. 그러나 제상에 차는 보이지 않고 술이 오른다. 술을 올리는데 왜 주례라 하지 않고 차례라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전국 18종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 이연자 지음 / (주)북21 컬처라인 발행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한국 언론사에서 1953년 정준하가 시작한 『사상계』는 전성기에 5만을 훨씬 넘는 발행부수를 기록했던 잡지로 김지하의 <오적>의 필화사건으로 폐간되기까지 우리 지식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미디어.

· 김건우 지음 / 소명출판 발행



조희룡평전 - 조선문인화의 영수

조희룡은 조선 후기 문인화가로서 중국의 문인화를 이 땅에 착근시켜 조선문인화를 창안한 인물이다. 이 책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고 평양조씨 족보, 후손들과의 면담 내용, 최근 발견한 전남 신안군 임자도내 유배지 이야기를 종합하였다.

· 조희룡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 지음 / 동문선 발행



눈으로 보는 인류의 지식 - 브라보 시리즈

시리즈 4 『그리스 사람들』, 신화의 나라이자, 합리적 정치 체제와 이성적이고 인간적 철학을 발전시킨 그리스, 2500년 전, 지중해의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던 작은 도시국가들이 역사의 격류를 헤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시리즈 5 『동물의 행동』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기초적 방법에서 최근 연구까지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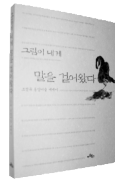
· (주)사계절출판사 발행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서정주의 미학적 성취와 정치적 행보의 불일치로 인해 야기되는 서정주 시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상찬이나 폄하 모두에서 벗어나 그의 시에 일관하는 내적 원리를 밝히고 있다. 크게 3부로 구성됨.

· 최현식 지음 / 소명출판 발행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조정육 동양화 에세이. '동양미술 에세이'라는 부제처럼 한·중·일 삼국의 그림을 통과한 지은이의 마음에 새겨진 풍경들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그림들은 지은이의 마음을 건드렸던 사연있는 그림들로 다시 독자의 마음에 담겨 우리 삶의 풍경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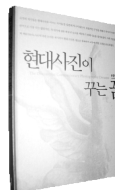
· 조정육 지음 / 아트북스 발행



일본어의 근대

'일본정신'을 투사함으로써 '일본어'를 '발견'한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국수주의적 언어관에 대한 비판에서 패전 후 국가권력에 의해 '일본어'가 폭력적으로 배치되는 양상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는 이 책은 '국어'와 근대국민국가의 관련성을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

· 코모리 요이치 지음 / 정선태 역음 / 소명출판 발행



현대사진이 꾸는 꿈

이 책은 라캉의 이론을 현대사진에 적용시킨 책으로 사진이 새로운 예술매체로 자리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준 회화와 사진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사진을 통해 기존의 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현대의 생활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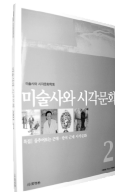
· 윤준성 지음 / 도서출판 푸른세상 발행



조벽암시전집

벽암이 일제강점기에 발표한 138편의 시 작품과 북한에서 발표한 시 작품 95편을 비롯하여, 산문 8편까지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조벽암의 문학세계를 파악하게 하는 일차적 자료로서 그 의미를 드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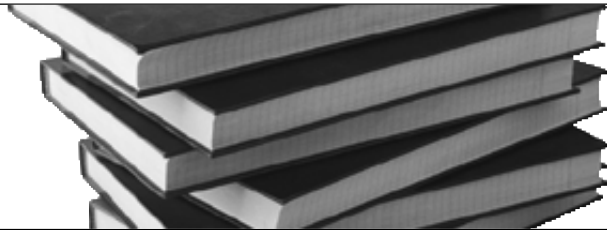
· 이동순·김석영 편 / 소명출판 발행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3년 제 2호 『미술사와 시각문화』, 최근 들어 폭발되고 있는 근대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 근대 시각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들추어보는 근대 - 한국 근대 시각문화'를 특집으로 꾸몄다.

·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지음 / 사회평론 발행



속삭이는 색

색은 삶의 질과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기존에 발행된 색에 관한 책들이 너무 이론에 치우쳐 이해보다 외움에 가까웠다면, 이 책은 인간이라든 누구나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에피소드들로 풀어낸 좋은 글 한편을 읽는 듯 잔잔한 기쁨을 준다.

· 양요나 지음 / 안그라픽스 발행



느티나무가 있는 학교

고학년 이상 창작 동화 1.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가슴 아픈 시절, 어른들은 일본 군인들의 총칼 앞에서 벌벌 떨었고 이때, 어린이들은 고사리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났다. 꿈을 품은 어린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동화로 만나보자.

· 김상상 글 / 장인한 그림 / (주)효리원 발행



영화비평문고 - 영화와 시선 5 『취화선』, 6 『친구』

영화 비평 문고 '영화와 시선' 시리즈는 국내외 평단의 주목을 받은 영화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풀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영화가 담론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토로도 아니지만 토속적인 냄새가 의미에 있다 하겠다.

·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 삼인 발행



어디 가세요 생쥐 엄마

생쥐 엄마가 아주 커다랗고 긴 빵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꼬끼리네, 사자네, 토끼네, 고양이네 집으로 가는 듯도 하고... 생쥐 엄마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아이들이 궁금해하면서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림책.

· 다다 히로시 지음 / 신현득 옮김 / (주)효리원 발행



나는 전생에 계집이였나 보다

윤길영 그림 에세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저자는 '오랜 세월 우러러 온 것은 이런 삶이 아닌데, 아닌데...'를 되풀이 하던 중 평소 틈틈히 고적였던 낙서들을 엮었다. 전업 작가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지만 토속적인 냄새가 묻어나는 그의 그림과 글귀는 향수에 젖게 만든다.

· 윤길영 지음 / 해누리 발행



사과나무 꿈나들이

닥종이 조형 작가 김영희가 들려주는 동화. 무릎에 아이를 앉혀 놓고 조곤조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써내려간 23편의 동화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어린시절을 추억하게 해준다.

· 김영희 지음 / 샘터 발행



신호등 속의 제비집

정채봉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 어느 봄날,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가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네거리 신호등에 터를 잡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제비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온정이 그려져 있다.

· 정채봉 글 / 주승인 그림 / (주)효리원 발행

- 보카치오의 유명한 여자들 / 조반니 보카치오 지음 / 임옥희 엮음 / 나무와숲 발행
-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 근대 한국을 거닐다 / 노형식 지음 / 이중학 사진 / 생각의나무 발행
- 날조된 역사 : 콜럼버스와 현대 역사가들 / 제프리 버튼 러셀 지음 / 박태선 엮음 / 모티브 발행
- 한국 민속문화대전 상 · 하 / 김용덕 지음 / 창술 발행
- 사랑법 : 그 담쟁이가 말했다 / 강은교 지음 / 솔과학 발행
- 영화로 철학하기 / 메리 리치 지음 / 이종인 엮음 / 시공사 발행
- 금속공예 - 한국 미의 재발견 08 / 김연수 · 최충천 지음 / 솔 발행
- 한국의 춘화 / 미술사랑 편집부 지음 · 발행
- 미술은 자유다 - 미술실기 지도서 05 / 김승수 지음 / 아트빌 발행
- 문화재 보존과학의 원리 : 문화재의 열화, 손상 원인과 그 보존대책 / 도이시 겐조 외 지음 / 전경미 엮음 / 한연 발행지음
- 신화가 된 이름 THE BEATLES / 한경식 지음 / 더불어책 발행
- 뉴에이지 음악 그리고 크로스오버 이야기 - 살림자식총서 055 / 양한수 지음 / 살림출판사 발행
- 알쏭달쏭 과학만화 1 · 2 / 우리기획 지음 / 김재일 그림 / 능인 발행
-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 / 하워드 F. 리먼 지음 / 김이숙 옮김 / 문예출판사 발행
- 사람을 길들이는 개 꾸구리 / 소중애 지음 / 심창국 그림 / 예림당 발행